

고규홍의 나무 생각



은행나무 열매의 고약한 냄새에 담긴 뜻

도시의 가로수로 은행나무만 한 나무도 없다. 은행나무는 수명이 길고 생명력이 강할 뿐 아니라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다. 게다가 지나치게 넓게 가지를 펼쳐치지 않아서 가지치기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는 '심근성' 나무여서 보도블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점도 가로수로써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무다.

산림청이 발표한 2015년 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가로수 678만 그루 가운데 뽕나무 종류가 약 146만 그루로 가장 많았다. 은행나무는 그 다음으로 100만 그루가 넘게 심어져 있다. 은행나무 다음으로 많은 가로수는 은행나무의 절반이 채 못 되는 약 44만 그루의 리팝나무다. 은행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수치다. 우리 광주시에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도 4만6000그루를 넘는다. 이토록 많은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노란 단풍으로 도시를 환하게 밝힌다. 따라서 가을의 상징인 것만은 분명하다. 은행 열매의 고약한 냄새가 골칫거리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 나

무여서, 열매는 암나무에만 열린다. 알맞은 것은 은행나무를 심을 때에 암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은행나무를 예로부터 '공손수'(公孫樹)라 불렀는데, 이는 할아버지가 심은 은행나무의 열매는 그의 손자 대에서나 겨우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은행나무는 적어도 20년 정도 자라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때에야 비로소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 결국 도시의 가로수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암나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 은행나무 가로수 가운데에도 고약한 냄새를 가진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전체의 약 20%인 9000그루를 넘는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은행 열매의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내놓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암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은행나무 열매를 일찌감치 채취하기도 한다.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 냄새를 풍기기 전에 나뭇가지를 흔들어 털어내고 빠르게 수거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에는 은행나무의 DNA를 분석

하여 암수를 구별하는 감별법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암나무를 골라 심을 수 있게 됐다. 것이다. 아무리 은행나무 잎의 노란 단풍을 좋아한다 해도 이 고약한 열매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러나 이 같은 여러 대책에 일정한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마다할 도시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구 위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식물인 은행나무는 무려 3억 년 동안 사람의 마을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왔다. 긴 세월 동안 나무는 슬하에 많은 생명들이 멸종한 빙하기와 같은 위기의 시기도 이겨내며 끊임없이 자손을 배출하고 키우면서 사람의 마을을 지켜왔다.

심지어 은행나무는 1945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본의 히로시마에서도 살아남았다. 당시 피폭 지역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전멸했지만, 이듬해 봄에 시커멓게 타들어 간 은행나무에서 초록의 새 잎이 솟아 나왔다. 원자폭탄을 이겨낸 유일한 생명체였다.

은행나무는 암수의 조화를 이루며 우리 곁에 살아남았다. 열매의 고약한 냄새

는 은행나무가 애먼글면 자신의 자손을 지켜 온 고유의 방식이다. 냄새 때문에 암나무를 퇴출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3억 년을 지켜 온 생식 본능을 차단해야만 하는 사람의 성마름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자칫 도시의 모든 은행나무들이 생식 기능 마비로 인해 스스로 번식하지 못하는 무생물과 다름없는 물질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앞선다.

더불어 산다는 건, 다른 생명의 원초적 본능을 지켜 주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른 생명의 본능을 망가뜨리면서 나의 본능을 고집하는 건, 더불어 사는 방식이 아니다.

은행나무의 고약한 냄새가 사라진 도시는 원자폭탄보다 더 위험한 환경으로 진입하는 조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을 초입 잠깐 동안 풍기는 고약한 냄새쯤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소명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저보고 체육 대회 의무실을 맡으라고요?



김종선 첨단우리병원 원장

큰 체육 대회나 전국적 행사가 열리면 병원들은 앰블런스 및 의료진을 보내주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사실 많은 의사들이 주말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낀다. 더불어 스포츠 손상(스포츠 손상은 경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응급 환자 발생 시 처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책임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의무팀으로 참여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고 필자한테 물어보는 의료인이 적지 않았다. 대회에 참석해본 경험상 심각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경기 중 대부분 의료진은 혹시 모를 환자 발생에 대한 긴장감과 기다림의 무료함 사이에서 시

간을 보낸다. TV에서 보면 선수가 경기하다가 다칠 때, 지체 없이 들것을 들고 가는 트레너와 팀 주치의의 보게 되는데, 프로 운동 팀이나 국가 대표 팀에서 팀 피지션(팀 닥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발생되면 의무실과 환자 발생 위치가 떨어져 주위 동료 선수가 일차적으로 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참가 선수도 응급 처치에 관한 기본 상식이 필요하다.

흔한 스포츠 손상으로는 햄스트링 근육(허벅지 뒷 부위)이나 종아리 근육의 경련 및 손상, 타박상, 발목 염좌(인대 손상) 등이다. 이러한 손상은 파스를 뿌리고, 얼음찜질을 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추후 정형외과 외래 치료를 안내하면 된다.

근육과 인대 손상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는 상식이니 알고 있으면 유익하다. 'PRICE'라고 흔히 영어 약자를 따서 말한다. Protection(깁스나 보호대), Rest(휴식), Ice(얼음찜질), Compression(압박-부어 있거나 피가 날 때), Elevation(거상-부어 있을 때 심장 높이 이상

으로 올려주기)를 실시한다. 의료진은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 선수 가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으니 수혈 장갑을 착용하고 환자를 만져야 한다. 의료진과 주위 동료를 가장 긴장시키는 응급 상황은 심정지, 경추 골절, 스포츠 뇌진탕이 아닐까 싶다. 프로 선수로는 야구의 임수혁 선수, 축구 이승모 등에게 경기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의 응급 상황 영상을 보면서 필자는 느낀 게 많았다. 주위 선수가 다리를 마사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다리 마사지는 경추 손상이 있는 경우에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심정지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다. 의식은 없어 보이고, 뭐라도 해야 하겠기에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준 것으로 보인다.

경추 손상의 경우 경추 보호를 위한 도수 조치가 필요하고 경추 보호대를 해줘야 2차 손상을 피할 수 있다. 다치는 순간에 목이 꺾여서 다쳤다면 경추 손상을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한다. 그래서 다칠 때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는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경련을 보이게 된다. 의식이 없고

심정지가 의심스러우면 바로 가슴 압박(CPR)을 하고 추후에 기도 개통을 유지하고 인공 호흡을 시행한다.

스포츠 뇌진탕이 의심되면 바로 후술을 해야 한다. 뇌진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Maddocks 설문'이라는 기억력 검사를 하게 된다. 지금 여기 경기장이 어디죠? 지금이 전반전인가요, 후반전인가요? 현재 스코어가 몇 대 몇인가요? 지난번 경기한 팀 이름이 무엇인가요? 지난 경기 때 어느 팀이 이겼나요? 등을 물어보아야 한다. 스포츠 뇌진탕으로 진단됐다면, 부상 당일에는 운동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인근 병원에서 뇌CT를 검사해야 한다.

35세 미만 젊은 운동선수의 급작스런 죽음(돌연사)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심근비대증이라고 한다. 격렬한 운동을 자주하는 운동선수나 생활 체육 선수들은 미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도 우리 고장에서는 크고 작은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휴일을 반납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에게 격려를 보낸다.

기고

미세먼지의 새로운 해결책, 광주 공기산업



오권중 광주환경공단 위생운영팀장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상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 됐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한 것이다.

20년 전에 우리는 물을 사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된 것처럼 이제 공기도 사먹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프로야구 경기도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을 정도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내 연평균 미세먼지(PM 2.5) 농도는 2017년 기준 25㎍/㎥였으나 올 3월 초 최고 농도는 150㎍/㎥에 달하면서 그 심각성과 해결 방안은 더욱 절실해져 가

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배출 저감 후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통해 국외 유입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이에 최근 국내외 공기 질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기 정화기 및 에어 가전, 필터 등 공기산업이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기 질 규제도 공기산업은 2020년에 166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과 함께 손잡고 '공기산업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 마스터 플랜에는 생활 환경에서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산업 플랫폼을 구성해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대응에 배출 저감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반면 이 계획은 앞으로는 강화되어야 할 배출 저감 정책을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는 배출원에서 직접 먼지 상태로 배출되는 미세

먼지와 더불어 2차 생성의 원인 물질도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은 거세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더불어 생활 환경에서의 적극적인 노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기산업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이다. 얼마만큼 잠재적 시장이 있는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공기가 필수 요소인 만큼 매우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가전 업체를 대표하는 대기업에서도 미래 공기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광주 공기산업 육성 계획'은 공기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공기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광주시를 공기산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도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17년 설립돼 운영 중인 '에어

가전 혁신 지원 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이 중심이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협업 모델을 만들고 이들이 전 세계에 진출함으로써 미세먼지를 해결하며, 지역 경제를 살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관리 체계와 대안이 강구돼야 국민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해법 마련이 가능하다. 공기산업은 생활 보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국가 산업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미래 산업이다.

만약 광주가 공기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면 6763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2624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 3651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경제적으로 기대되며 사회적으로는 지금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실현시키리라 예상된다.

미세먼지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광주 공기산업이 지속 가능한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 큰 축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걱정 없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社說

40주년 맞는 5·18 미래 지향점 고민할 때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의 기념사업이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5·18의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해 오월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노력이다.

광주시는 그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 경제 분야와 기념행사 분야 전문가가 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40주년 이후 5·18의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는 도시 자체가 5·18 테마파크이고 오월 정신은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활용해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오월 경제'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광주 30곳, 전남 70곳을 포함해 전국의 5·18사적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5·18과 오월 정신을 주제로 한 도시 축제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5·18 기념행사와 관련 박강의 전 5·18 전야제 총감독은 "그동안 5·18행사에 위대한 5월 단체, 시민운동 단체, 민중운동 단체의 요구가 조금씩 달라 미묘한 긴장 상태가 지속됐다"며 "이러한 조직 운영상 문제는 지역민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40주년을 앞둔 5·18의 최대 과제는 발포 명령자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광주가 오월의 유산을 바탕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의 정립도 중요하다. 지난 7월 토론회에서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5·18 경제' 개념을 구체화한 이무용 교수의 '오월로 밥 먹고 사는 도시 만들기'는 그 대안의 하나로, 지역 사회가 함께 공유하며 논의를 이어갈 가치가 있다. 이는 광주 시민의 삶 속에서 오월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휴·폐관 속출 '작은도서관' 인력·예산 지원을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잇달아 문을 열고 있지만 예산과 운영 인력 부족으로 휴·폐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운영이 중단된 작은도서관 숫자가 새로 문을 연 도서관 숫자를 웃돈다. 올해 413곳이 새로 문을 연 반면 468곳이 휴·폐관 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작은 도서관'이란 '도서관 사명'에 의해 면적 33㎡(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을 갖춘 도서관을 말한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415곳과 전남 148곳 등 전국에 총 6786곳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광주는 415곳 가운데 12곳이 휴관 중이며 13곳이 폐관됐다. 전남은 148곳 중 1곳이 휴관, 7곳이 폐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면 공립 작은도서관이 22.6%, 사립 작은도서관이 77.4%로 조사됐다. 사립의 경우 아파트(37.4%)와 개인·민간단체(27.0%), 종교시설, 새마을문고, 법인 등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들 가운데 58.4%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담 인력(사서) 없이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작은도서관 휴·폐관 사례 속출은 이처럼 인력 및 예산 부족이 기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도서관의 가치는 변함없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독서문화 공간이다.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을 살리기 위해 운영 전담 인력과 예산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을 즐겨 이용하는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無等鼓

견지법(見知法)이라는 게 있다. 관리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경우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무제 당시 어사대부를 지낸 장탕(張湯)이 만들었다. 이를 가혹하게 적용하며 승승장구한 장탕은 부하 직원의 무고에 자결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견지법은 지금의 불고지죄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상양은 주민을 5호·10호씩 조직해 그 중 한 명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도 처벌하는 제도(什伍之制)를 만들어 시행했다.

검찰 개혁

지금의 연좌제에 해당한다. 이 제도로 진나라의 범죄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상양도 이 제도로 희생되는 운명을 맞았다. 사마천은 유독 법가(法家)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기열전'에서 그는 '법령이 정치의 도구이기 하지만, 백성들의 청탁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과 공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데다 이 역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부와 권력 등에 의해 법이 불공평하게 집행되는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고래(古來)로 검찰의 수사 방식은 늘 논란거리다. 범죄의 혐의점이 있을 경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관행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때문이다. 드러난 혐의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컴퓨터 등에 담겨 있는 인생까지 송두리째 까발려지며, 검증은 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압박감은 늘 수밖에 없다. 소위 '별건 수사' 역시 다반사로 벌어졌다. 수사의 개시와 그 강도 및 결과가 모두 검찰 손에 있다 보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게 됐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검찰에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과거 법대로 살아 왔는지 일일이 찾아내 만천하에 공개해 달라고 바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친 검찰의 엄격한 수사에 마주한다면 우리 모두 '예비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고집하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를 관리·감독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인권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